



2026년 5월 17일(제1300호) 주님 승천 대축일(봉보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봉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결별이 아닌 영원한 만남”

사제가 되어서 본당에 있다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교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종신부로 와서 본당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수없이 이사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는 가족을 보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군종교구에서 사목한 지 1년이 안 되었지만, 벌써 몇 명의 신자들과 헤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자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한 번씩 안부를 묻는 경험이야말로 그분들과 영원히 관계 맺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심을 기념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첫 번째 헤어짐과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첫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주님의 승천으로 제자들은 헤어짐을 다시 경험하는 듯하지만,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기쁨에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곧, 그분의 승천은 결별이 아니었습니다. 주

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말씀 그대로 이제는 그 체로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이로 인하여 영원한 만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가끔 하늘을 보며 생각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활동하는 그분의 자녀로 순례합시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



조영래(하상비오로) 신부
동해(제22보병사단) 상당 주임

제 1 특 시

사도 1,1-11

회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특 시

에페 1,17-23

복음 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 28,16-20

영 성 제 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1953년 천주교측에서는 17명이 군중으로 입대하였는데, 군중 7기에는 신부 6명 이외에 김창렬, 황춘홍, 이재만, 김덕제, 이병만, 김남수, 최창규, 서상우, 이응현 등 9명의 신학생과 전교회장이던 김용훈, 조남극 등은 보조군목이었다. 이들 보조군목들은 각자 배속된 사령부의 군중부에서 활동하면서 매일 각 부대들을 순회 방문하여 반공 정신 강화를 위한 훈화 등을 하였다.

나는 1951년 부산의 육군병원과 서울의 제36 육군병원에서 전교회장으로 봉사하다가 1953년 육본 조인원 신부의 권유로 제7기 군목후보생 선발 때 응모, 합격하여 제297부대에 입대하였다. 나와 같은 내무반에는 조창희 신부도 계셨다. 교육 기간 중이나 수료 때도 우리 천주교 측의 성적이 월등히 양호하였다. 임관되어 타지인 12사단 사령부에 부임하여 보니 군중부에 목사는 5명, 천주교 군중은 나 혼자였다. 나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대대, 소대, 포사령부, 의무대 등을 순회하며 반공 정신 훈화를 실시했고, 미 군중신부의 요청으로 인근 제11의 무대에도 매주 1회 출장, 카츄사들에게 정신 훈화를 실시하였다. 일요일에는 인근 11사단의 최익철 신부를 초청하여 사령부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목사들과는 처음에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나 사령부 참모들과 친분이 두터워진 덕분에 천주교 활동이 활발하여지자 이를 시기한 목사들의 모함으로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려 할 즈음 후방 제15 육군병원으로 전속되고 말았다. 그 후 어느 부대에 전속되거나 숫적으로 우세한 목사들 틈바구니에서 고군분투하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또한 그들은 전선으로 나가기 위해 역전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신병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종교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강연 후에는 목주와 성모패를 신자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비가톨릭 신자 병사들도 받기를 원하였다. 성모패나 목주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 기쁨을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기쁨을 안고
 우리의 아이들과 오늘을 산다는 것은
 저 하늘을 참 신나는 일입니다.
 날 수 있다는 것이. 당신과 함께라.

참 행복한 일이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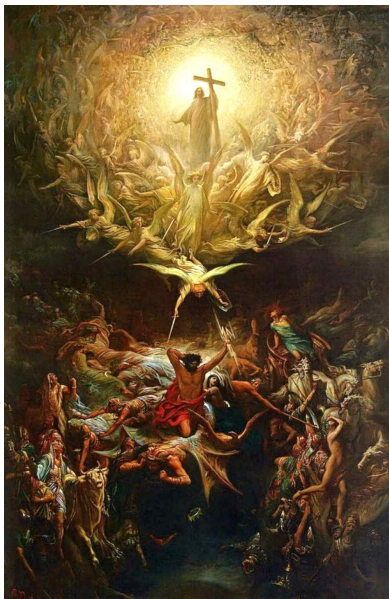


◆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 분량: A4 빈쪽~힉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선정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화이야기

이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승리



구스타브 도레(Gustave Doré, 1832-1883)
1868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300x200cm
해밀턴 미술관, 캐나다 온타리오

본 작품은 신학적 메시지를 압도적인 규모와 극적인 대비로 표현한 작품이다. 화면은 아래와 위로 뚜렷이 나뉘며, 아래쪽에는 무너져가는 이교와 우상의 세계가, 위쪽에는 찬란한 빛 속에 계신 예수님과 천상 세계가 펼쳐진다. 이러한 구도는 단순한 장면 묘사를 넘어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한다.

작품의 하단은 짙은 갈색, 회색, 탁한 청색 등의 어둡고 무거운 색조로 채워져 있으며, 쓰러진 신상들과 인물들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다. 고대 그리스·로마 신들로 묘사되는 우상이나 이교들은 힘을 잃은 채 무너지고, 인물들의 몸짓은 절망과 저항, 혼돈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 어둡고 탁한 색감은 하느님을 떠난 인간 세계의 불완전함과 영적 공허를 강조한다.

반면 화면 상단으로 갈수록 색채는 급격히 밝아진다. 황금빛과 눈부신 흰색, 그리고 맑은 푸른빛이 어우러지며 천상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중심에는 십자가를 든 예수님이 찬란한 빛 속에 계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와 영혼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들의 옷자락도 밝은 청색과 금빛으로 물결치듯 훑날리고 있어, 아래의 혼란과 대비되는 완전한 조화와 평화, 아름다움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낸다.

가톨릭적 관점에서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이긴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선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상단 세부도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표지이며, 아래에서 무너지는 우상들은 인간의 교만과 거짓된 신념이 사라지는 모습을 의미한다. 결국 이 작품은 어둠과 혼란 속에 있던 우매한 인간이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주님 승전 대축일: 한빛 조해용 신부

◆ 교구장 통장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유수일 F. 하비에르 주교님 선종 제1주기 추모 미사) -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님 선종 제1주기 추모 미사
- 때·곳: 5월 17일(주일)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때·곳: 5월 21일(목) 11:00, 성거산성지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